

작업에 임하는 자세

우리의 항상 안전하고 경건하게 작업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

첫째, 규칙을 지키는 생활을 토대로 튼튼한 몸과 밝은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다.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는 부상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는 튼튼한 몸과 작업에 흥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운동부족, 수면부족, 과식 등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작업시에는 활력과 상쾌한 기분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몸의 상태가 나쁠 때에는 상사에게 상의하도록 한다.

둘째, 작업에 임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한눈을 팔지 말고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시작전에 공구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이나 기계, 공구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배운바 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의 시작이 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곧 상사에게 의논하여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기계나 작업에는 참견하지 말아야 하며 재미로 또는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 흉내를 내다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



CHECK POINT

- * 작업은 항상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
- * 취급할 기계설비와 재료등의 위험성에 대해 잘 배우고, 듣고, 익힌다.

부상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지만, 부상을 경시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올바른 지식을 몸에 익혀 위험을 피하며 배운대로 안전작업방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작업종료의 벨이 울릴 때까지는 작업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곧 끝난다는 해이된 마음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예는 많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뒷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다. 자기가 사용한 기계나 공구의 점검과 손질, 주의의 정리정돈, 마개나 나사의 조임, 용기의 뚜껑을 열어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이 볼트라고 할 때 볼트 자체는 생산의 전공정에서 중요한 부품이 아니더라도 그 볼트가 빠졌을 경우 당해 제품은 완성품이라고 불리울 수 없다. 결국 자기가 맡고 있는 작업이 그 자체로서는 하찮을지라도 다른 부품과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근로자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